

사회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센터 '어울림 참살이터'가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문을 열었다. /최현백기자 choi@kwangju.co.kr

다문화 가족 '문화 사랑방'

광주 봉선동에 '어울림 참살이터' 개원

원목탁자에 아름다운 그림으로 장식된 벽면, 잔잔한 음악이 울려 퍼지는 아늑한 공간에 다문화 가족 여성들이 차를 앞에 두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 광주은행 봉선지점 뒷편 165㎡(약 50평) 넓직한 공간에 새로 꾸민 한 카페의 풍경이다. 말이 잘 통하지 않고 풍습이 달라 스트레스를 받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장 큰 고충은 '다문화살이터'다.

지난 2일 문을 연 이곳이 다른 곳과 차별되는 것은 '다문화 가족'에 의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열린 공간이라는 점. 센터 한 칸을 새로 단장해 꾸민 '어울림 참살이터'는 직원 모두가 일본, 베트남, 중국 출신

직원 모두 이주여성들 중국 만두·월남쌈 등 각종 전통음식 상차림 취업·창업 프로그램도

신 결혼이주여성들이며 나누는 상처를 또한 다문화 가족의 전통 음식과 전통차들이다. 어울림 참살이터는 점심 때는 일본식 김밥 '데마끼 쓰시'를 비롯해 월남쌈, 중국 만두, 삼색 영양떡국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오후 한가한 시간에는 경곡고차, 동과차, 보이차 등을 파는 차집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에 8년 살았다는 일본 출신 쯔바다 와카코(38)씨는 "한국에 와 처음 잡은 일자리에 만큼 열심히 일하겠다"며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한국의 풍습에도 익숙해질 수 있는 즐거운 일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곳은 언어·풍습의 차이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다문화 가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된다.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곡고학교, 바리스타, 소문전문가, 규방공예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취업이나 창업에 원하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실습 역할을 한다.

어울림 참살이터를 운영을 맡은 홍지현(39)씨는 "이곳을 다문화 가족이 교류하는 '문화·예술 사랑방'으로 꾸려 갈 것"이라며 "이곳에서 나온 수익금은 결혼 이주여성의 자립을 돕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는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센터는 어울림 참살이터에서 내내 연중 다문화가족의 그림 및 시화 작품 전시회를 열고, 노래 공연도 펼쳐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문의 062-676-887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교사가 교감 근무평가 논란

전남도교육청, 인사규정 개정 추진

학교폭력 84%

중학교서 발생

광주시교육청 자료

전남도교육청이 중간 관리자인 교감 교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評定)을 동료·후배 교사들이 하도록 인사내부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감들의 근무성적평정(근평)을 계량화, 객관화, 수치화하고 이를 통한 순환 인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교사 평가 반영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교고 교감 평정은 학교장이 50%, 본청 교육국장이 50%를 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국장의 평가에 교사들의 평가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도 교육청은 "학교마다 한명인 교감에 대한 근평의 50%를 맡는 학교

장이 대부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줘 객관화가 힘들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교육계에서는 초유의 일인데다 근무성적 평정을 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일선 교고 교감은 "후배로부터 인기투표나 다름없는 평가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교단 붕괴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근무방법을 일선 교육감이 고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80% 이상이 중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시에 제출한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10월 말까지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1257건 가운데 83.7%인 1052건이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고교에서는 전체의 13.2%인 166건, 초교에서는 전체의 3.1%인 39건이 각각 발생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모두 2390명 있었지만, 가해학생은 총 3347명(초등학생 72명, 중학생 2899명, 고등학생 376명)으로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이 상행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시교육청은 3년간 학교폭력 가해 학생 중 135명 전학, 6명 퇴학 등 141명을 해당 학교에서 '퇴출'시켰고, 피해 학생 3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학교를 옮겼다. 연도별 학교 폭력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 682건, 2009년 522건, 올 들어 10월 말까지 107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학부모 88% "학생인권조례 찬성"

광주, 학생은 86%

광주 지역 학생과 학부모 10명 중 8명은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광주학생인권조례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위원회가 광주권 중·고등학생 561명과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 323명, 전국 교사 14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필요성에 학생 85.9%, 학부모 88.2%, 교사 88.7%가 찬성했다. '인권을 보장하면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어 학교폭력이 늘어날까 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학생 60.6%, 학부모 65.7%, 교사 82.2%가 '동감하

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설문문에 참여한 학생 64.1%가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나, 처벌이 잘못을 고치는데 영향이 있었다는 학생은 35.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에 대해 교사 60.3%는 폐지를, 32.8%와 7%는 현 교육여건에서는 불가하거나 존치돼야 한다고 답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광주학생독립운동 지지 집회

도쿄·오사카서 열렸었다

1929년 11월 부터 3개월간

40여 단체 조선총독부 규탄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지지하는 집회가 당시 일본 주요 도시에서 열렸다는 비밀문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전남대 학생독립운동연구단은 1929년 11월3일 광주학생운동 직후 일본의 최대도시인 도쿄와 오사카에서 제일 유학생, 노동자 등으로 결성된 40여개 단체가 조선총독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격문을 발표한 내용이 담긴 일본 내무성 경보국(內務省 警保局)의 비밀자료를 3일 공개했다.

국내에서 320여개, 중국에서 40여개 학교가 광주학생운동에 참가했다는 자료는 있었지만, 일본에서 광주학생운동을 지지하는 대화를 개최하고 격문발간, 항의서한 발송 등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의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료에는 당시 유학생,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참가 단체들의 구체적인 활동과 이들의 활동을 사찰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자료에 따르면 유학생과 노동자들은 광주학생독립운동 발발 20여일 지난 1929년 11월24일로부터 움직임을 보인다. 이는 당시 언론이 철저히 통제된 탓에 광주학생독립운동 소식이 일본에는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이후 1930년 1월까지 3개월여 동안 동경조선노동조합이 광주투쟁사건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광주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격문을 발표했으며, 오사카에서는 조선인노동조합이 조선총독부를 규탄하고 총독에게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의 다양한 투쟁을 벌였다는 것이다.

학생독립운동연구단 김재기 교수는 "일본 내무성은 조선 유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감시했다"며 "냉혹한 감시 속에서도 재일유학생들과 노동자 단체들이 조국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항일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일제의 탄압을 규탄하는 대화를 개최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생독립운동연구단은 영남 출신 독립운동가 최규선 선생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지인들의 조사를 한데 묶은 조문록을 공개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한낮엔 포근 아침에는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지만 낮부터 평년기온을 되찾는다.

광주	맑음	4/18℃
목포	맑음	5/17℃
여수	맑음	8/16℃
완도	맑음	5/17℃
구례	맑음	1/18℃
예남	맑음	0/17℃
정흥	맑음	0/17℃
고흥	맑음	2/19℃
순천	맑음	5/18℃
영광	맑음	3/17℃
진주	맑음	4/18℃
전주	맑음	3/17℃
남원	맑음	-2/16℃
흑산도	맑음	10/1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0.5m	☀	보통	주의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0.5m	☀	보통	주의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0.5m	☀	보통	주의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0.5m	☀	보통	주의

◇주간날씨	5(금)	6(토)	7(일)	8(월)	9(화)	10(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6/19	8/19	8/19	8/13	5/14	4/15

제1회 광주/전남 초·중등 영어학력평가

참가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광주, 전남지역 거주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참가신청: 신청기간: 2010년 11월 15일 ~ 12월 9일
신청방법: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 참조

시상내역: 최종 수상인원
1. 뉴질랜드 1개월 어학연수 20명
2. 1천만 원 상당 장학금 수여 105명(초등69명, 중등46명)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www.kwangju.co.kr)

구분	참가 자격	수상 자격	비고
초등부 (JET)	초등부	JET 초급부문: 1~2학년	[등점자 처리기준]
		JET 중급부문: 3~4학년	· 1순위: Writing 성적 순으로 최종 심사
		JET 고급부문: 5~6학년	· 2순위: 연소자 우선 (생년월일 늦은 순)
중등부 (TOEIC Bridge)	중등부	중학교 1학년 부문	· 3순위: 해외채류 무 경험자 우선
		중학교 2학년 부문	
		중학교 3학년 부문	

응시료: JET : 22,000원(VAT 포함), TOEIC Bridge : 29,000원(VAT 포함)

응시일자: 2010년 12월 19일(일)

응시장소: 광주·전남 지역 지정 교사(추후 홈페이지 게시예정, 참조)

주최: 광주일보 / 한국 TOEIC 위원회
시행: 한국 TOEIC 위원회
후원: 한국영어교육협회 / YBM Sisa.com

문의 및 안내: 기획사업국 : 062-220-0555
광주일보(www.kwangju.co.kr) 홈페이지 참조

2500만 고객을 위한 블록버스터 카드

Touch 1 카드 출시!

나라의 반을 움직일 카드, 고객이라면 이제 지갑 속에 하나SK카드 하나

하나SK카드

4547 1072 5676 7012

HANASK KIR SHIN YONG

최대 혜택 50%할인 / 영한 연간 12회 무료 / 주유, 마트, 호텔 22만 할인 / 학원 배당 1만만 할인